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이 지 연
(서울대학교)

그레이스 정*
(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이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227쌍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10-15세 초기청소년 211명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을 점수화하여 조절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극적 문제해결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더 낮추었다. 셋째,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다. 넷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는 회피가 오히려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지추구는 차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차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용어: 다문화청소년, 차별,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

이 연구는 2015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그레이스 정, 서울대학교(gracechung@snu.ac.kr)

■ 투고일: 2016.4.7 ■ 수정일: 2016.6.13 ■ 게재확정일: 2016.7.11

I. 서론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다문화가족이 한국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지 약 15년이 지났다.¹⁾ 다문화가족의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해볼 때,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실제로도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24.5%가 중학교에, 27.6%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양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겪는 차별적인 상황들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며 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쏟아지는 학문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도움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고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로 타인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다른 이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50, 송제훈 역). 뿐만 아니라 초기청소년기부터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은 자신들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는 미묘한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적응적인 단계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사회는 나와 다른 타인 혹은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이주민에 대하여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이다(문종욱, 2012).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들의 인종이나 민족 지위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p.628)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13.8%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1)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확장되었다(설동훈 등, 2005, pp.19-52).

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청소년시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이 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차별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는 국외에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한국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차별이 미치는 영향이 국외 선행연구들과 다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별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삶과 이들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의 발달적·심리적·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이 스트레스적 상황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Neblett et al., 2008; Wei et al., 2008; Utsey et al., 2000; Noh et al., 1999; Broman, 1997), 차별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이 삶의 여러 순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세우는 심리적 전략과 행동 반응을 대처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소수민족/인종의 대처전략은 이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일반적인 대처전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Wei et al., 2008; Mosher & Prelow, 2007).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이들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처전략의 각 유형이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차별과 생활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민족/인종적 차별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민족/인종적 차별을 민족/인종에 근거해서 특정 민족/인종 집단에게 불이익이 되는 차별대우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lank et al., 2004, p.4; Huynh

& Fuligni, 200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차별 경험은 여러 측면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Neblett et al., 2008; Wei et al., 2008; Utsey et al., 2000; Noh et al., 1999; Broman, 1997). 특히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전환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기의 경우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부분의 적응적인 발달이 저해되며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만 10세부터 시작되는 초기청소년기(보건복지부 등, 2013)는 분류능력과 사회적 비교능력 등의 인지적 발달이 정교화됨에 따라 차별적인 경험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Brown & Bigler, 2005). 이러한 인지능력의 발달로 인해 주변에 존재하는 민족/인종차별적인 상황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민족/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지각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타인의 평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Erikson, 1950; 송제훈 역).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은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차별에 대한 지각능력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차별은 다문화청소년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민족/인종적 차별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적 발달과 부적응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김석준, 2015),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이들의 차별경험이 지목된 바 있다(김혜미 등, 2011).

차별을 비롯하여 가족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여러 이슈들을 마주하게 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학문적인 관심을 보이는 주요 연구 영역 중에 하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이 모두 유사한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Fujita & Diener,

2005). 생활만족도의 측정은 자신의 현재, 과거,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인지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Diener et al., 1985). 국내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적지만(안선정 등, 2013), 국외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들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Zulling et al., 2005). 이처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비교적 잘 포착해내는 생활만족도는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즉,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들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Barnes & Lightsey, 2005).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민족/인종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민족/인종적 차별의 경험이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사회 내에서 민족/인종적 소수자 개인의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은 이들이 받게 되는 차별에 의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Jackson et al., 1996).

2.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

가. 대처전략의 정의 및 유형

삶의 여러 장면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이라고 부른다. 이 때, 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반응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또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한 가지 유형이 될 수 있다. Lazarus(1993)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다스리는 목표지향적인 과정을 대처(coping)라고 보았다. Compas 등(2001)은 대처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처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정과 인지와 행동과 신체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이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단순한 반응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와 의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의식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Skinner(1995)는 대처모델(coping model)에 문제를 회피하는 것과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또한 대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피나 부정, 긍정적인 재구성 등은 개인의 능력과 자존감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서 취하는 심리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Ways of Coping Scale은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coping)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Folkman과 Lazarus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노력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처전략을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양분한 이들의 논의와 측정방법은 대처전략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분류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각 영역에 포함되는 대처전략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대처전략이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Coyne & Gottlieb,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대처전략을 보다 적합하게 구분하기 위한 실증적인 후속연구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Ways of Coping scale의 항목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다양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Carver et al., 1989). 이에 Carver 등(1989)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대처전략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각각의 다양한 대처전략을 나누어서 보다 깊게 연구하기 위해 대처전략의 차원을 14가지로 나눈 COPE scale을 개발하였다. 이후에 Carver(1997)는 45문항으로 구성된 COPE scale이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문항을 수정 및 축소하여 14개 하위척도에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the Brief COPE를 제공하였다. 하위척도의 구체적인 분류는 적극적 대처, 계획하기, 긍정적 재구성, 수용, 유머, 종교, 정서적 지지 사용, 도구적 지지 사용, 주의 전환, 부정, 발산, 약물 사용, 행동 철회, 자기 비난을 그 내용으로 한다.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는 경험적으로 수집된 대처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심리측정의 안정성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는 척도이다 (신혜진, 김창대, 2002). 이 척도는 대처전략으로 사회적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 문제해결(problem-solving), 회피(avoidance)라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을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Carver의 the Brief COPE의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 유형은 적극적 대처와 계획을, 사회적지지 추구 유형은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회피 유형은 주의전환과 회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전략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 밖에도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매우 많지만(Compas et al., 2001, pp.93-99에 제시된 표를 참조) 유형의 분류는 대동소이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대처전략 구조의 개념적 모델을 검증한 Sandler 등(1996)의 유형은 적극적 대처 유형(인지적 의사결정, 직접적인 문제 해결, 이해하기, 긍정적인 인지적 재구성), 사회적지지 유형(정서 중심적 지지, 문제 중심적지지), 주의전환 유형(주의 전환적 행동, 신체적 에너지 발산), 회피 유형(인지적 회피, 회피적 행동)으로 분류된다. Walker 등(1997)도 요인분석을 통해 적극적 대처(문제 해결, 지지 추구 등), 소극적 대처(철회, 수용), 순응적 대처(고통 최소화, 주의 전환, 무시 등)라는 3가지 대처유형을 도출해냈다.

나. 대처전략의 유형별 효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관심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상황을 현실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과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통해 받는 부정적 영향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관련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해석하여 행동하는가 하는 일련의 대처과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박진아, 정문자, 2001). 일반적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각 대처전략의 효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긍정적인 효과를, 소극적 대처전략과 회피전략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을 더 잘 극복한다거나(심희옥, 2000), 문제 중심적 대처나 사회적지지 추구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이나 소망 사고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연구(김진주, 조규판, 2011)는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적극적 대처 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시켜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긍정적인 대처전략으로 나타났으며(김광은, 2004),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강혜자, 2012). 외국의 연구들도 스트레스 상황의 정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정서적 대처보다는 문제 해결적 대처가(Endler & Parker, 1990; Lazarus & Folkman, 1984), 소극적 대처보다 적극적 대처가(Littrell & Beck, 2001), 회피적 대처보다 접근적 대처가(Suls & Fletcher, 1985) 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대처방식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한성열 등,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연성을 제안하면서 지속적이고 변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적응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다(한성열 등, 2001).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과 적극적 해결보다는 주관적이며 긍정적으로 왜곡된 지각과 회피전략이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Snyder & Higgins, 1998). 이는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민족/인종적 차별과 스트레스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 사회 내의 인종차별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럽계 미국인들에게는 적극적 대처 전략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반면,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회피적 대처전략 또한 우울을 낮추고 대처효능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Mosher & Prelow, 2007; Utsey et al., 2000). 해당연구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전략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적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전략을 취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전략이 선호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안 유학생들의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살펴본 Wei 등(2008)의 연구나 캐나다의 동남아시아 난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우울 및 대처전략에 관한 Noh 등(1999)의 연구도 주류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소

수자의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취하게 되면 문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입장에 놓인 경우에는 적극적 대처전략이 대치적인 상황을 만들어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며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문제해결의 대처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지위는 민족/인종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보이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효과와 방향도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자나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와 방향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효과와는 다소 상이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적극적 대처전략은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 다문화청소년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회피적 대처전략은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어머니 227쌍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1004/001-002),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연구의 무해성, 연구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나 지역센터

를 중심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추출되었다. 수집된 원자료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표본은 조사 당시에 만 10세에서 만 15세 사이였던 초기청소년 211명이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여학생이 126명(59.72%)이며, 평균연령이 12.27세(SD=1.39)였고,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그 중에 2명은 비전일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별 인원은 서울 41명(19.43%), 경기 28명(13.27%), 인천 49명(23.22%), 대구 18명(8.53%), 경북 75명(35.55%)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의 출신국가는 거의 대부분 한국이었고(92.16%), 어머니는 일본출신이 37.06%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출신이 36.55%로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그 외 출신국가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적을 동아시아와 비동아시아로 나누어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한국의 일반가정 청소년과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연구대상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국적

출신국가	인원수(%)	출신국가	인원수(%)
한국(국적)	10(5.08%)	말레이시아	1(0.51%)
몽골	7(3.50%)	인도네시아	5(2.54%)
일본	73(37.06%)	캄보디아	2(1.02%)
중국	72(36.55%)	태국	2(1.02%)
베트남	10(5.08%)	러시아	1(0.51%)
필리핀	13(6.60%)	우즈베키스탄	1(0.51%)

주: 분석에서 사용한 동아시아 국가 이분변수는 동아시아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을 포함함.

2. 측정도구

가. 생활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를 아동학 박사 1명, 가족학 박사 1명이 번안한 후에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교수 1명, 한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한 아동학 교수 1명이 정확한 의미전달여부와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Gilman & Huebner, 1997). 척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생활만족도 변수의 평균값은 2.72점(SD=.71)이고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나. 다문화청소년으로서 받는 차별

다문화청소년으로서 받는 차별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arrell(1997)이 개발한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RaLES)의 일부를 Araujo(2004)가 수정·보완한 Daily Racial Hassles(DRH)를 사용하였다. DRH는 과거에 경험한 인종주의(racism)와 일상적인 차별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성되며, Harrell은 원척도에서 18개의 각 문항에 대해 경험한 빈도와 그 경험의 강도 및 영향을 각각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Araujo(2004)는 이를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된 적이 없지만 인종차별에 관한 국외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Seaton, Yip, & Sellers, 2009; Scott & House, 2005). 본 연구에서는 DRH를 아동학 박사 1명, 가족학 박사 1명이 번안한 후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교수 1명, 한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한 아동학 교수 1명이 정확한 의미전달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차별경험의 강도 및 영향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나요? 이런 일로 얼마나 불쾌한가요?'라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 본다', '대화나 활동에서 따돌림을 당한다'와 같은 서술에 대해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0점 =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1점 = '전혀 불쾌하지 않다', 2점 = '조금 불쾌하다', 3점 = '다소 불쾌하다', 4점 = '많이 불쾌하다', 5점 = '극도로 불쾌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에

는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의 평균값은 .33점 (SD=.69)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차별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

다문화청소년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 등(1989)이 개발한 The Coping Orientation for Problem Experience(COPE) inventory를 Carver(1997)가 효율적으로 축소한 the Brief COP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대처(active coping), 계획하기(planning), 긍정적 재구성(positive reframing), 수용(acceptance), 유머(humor), 종교(religion), 정서적 지지 사용(using emotional support), 도구적 지지 사용(using instrumental support), 주의전환(self-distraction), 부정(denial), 발산(venting), 약물사용(substance use), 행동 철회(behavioral disengagement), 자기비난(self-blame)의 총 14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뉘고, 개별영역은 각각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The Brief COPE의 총 문항수는 28개이며,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에서 종교와 약물사용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행동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범주체계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인다(한성열 등, 2001). 또, 약물이나 음주 등은 본 연구의 대상인 만 10-15세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대처방식이다. 발산의 경우는 원칙도 개발연구(Carver et al., 1989)에서도 의미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Carver(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50으로 가장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의 대처유형 분류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대처전략을 ‘적극적 문제해결(적극적 대처+계획+긍정적 재구성)’, ‘소극적 문제해결(수용+행동철회+자기비난)’, ‘회피(주의전환+유머)+부정’, ‘지지 추구(도구적지지+정서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적극적

2) 유머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대처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유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머는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유머와 부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유머로 나뉜다(Martin, 2007, pp.31-56; Kuip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유머를 측정할 문항은 (예를 들어, 나는 그 상황을 우습게 여겨버린다), 상황을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대처방식에 관한 서술이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유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문제해결 .84, 소극적 문제해결 .79, 회피 .70, 지지추구 .77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척도 별로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변수의 평균값은 4점 만점에 적극적 문제해결 2.80점(SD=.59), 소극적 문제해결 2.00점(SD=.60), 회피 2.30점(SD=.56), 지지추구 2.59점(SD=.63)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으로서 겪는 차별경험의 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참조집단=여학생), 연령, 어머니의 출신국가(참조집단=동아시아)를 통제하여 차별경험의 강도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 다음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별강도와 각각의 대처전략을 곱하여 만든 상호작용항들을 기존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상호작용항의 생성은 변수값을 직접 곱하여 만들지 않고, Stata 12.0의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과정에서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명령어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검증할 때 나타나는 표준화계수의 추정오류를 교정하고 극복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표본 수는 만 10세부터 만 15세 사이의 다문화청소년 211명이지만,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대하여 결측값을 가진 표본이 자동으로 제외된 뒤 최종분석이 이루어진 표본 수는 132명이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12.0 SE가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차별경험의 강도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과 대처전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N=132)

	모형 1		모형 2	
	B	S.E.	B	S.E.
성별 ^a	-.07	.11	-.10	.11
연령	-.07*	.04	-.07	.04
어머니 출신국가 ^b	.03	.11	-.01	.11
차별강도	-.17*	.07	-.36***	.09
대처전략 1-적극적 문제해결	.50***	.11	.43***	.11
대처전략 2-소극적 문제해결	-.23	.18	-.26	.17
대처전략 3-회피	-.13	.13	-.04	.12
대처전략 4-지지추구	.09	.12	.17	.11
차별강도 * 적극적 문제해결			-.38**	.13
차별강도 * 소극적 문제해결			-.38**	.13
차별강도 * 회피			.51**	.17
차별강도 * 지지추구			.48**	.15
F	8.87***		17.27***	
R ²	.30		.34	

주. a참조집단=여학생, b참조집단=동아시아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통제하고 차별강도와 각 대처전략의 주효과를 분석한 모형 1에서는 연령, 차별강도, 적극적 문제해결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졌다(B=-.07, $p < .05$). 경험한 차별을 불쾌하게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졌으며(B=-.17, $p < .05$), 적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B=.50, $p < .001$). 최종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차별경험의 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 대처전략 유형이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모형 2에서 검증하였다. 모형 2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사라지고, 차별강도와 적극적 문제해결이 주효과로서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했으며, 모든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효과를 살펴보면 인지한 차별경험의 강도가 강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B=-.36, $p < .001$), 적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B=.43, $p < .001$).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첫째, 차별의 강도가 높을 때 적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강하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B=-.38, p < .005$), 둘째, 차별의 강도가 높을 때 소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강하면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며($B=-.38, p < .005$), 셋째, 차별의 강도가 높을 때 회피의 정도가 강하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B=.51, p < .005$), 차별의 강도가 높을 때 지지추구의 정도가 강하면 삶의 만족도는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48, 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해석을 돕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는 독립변수인 차별강도와 조절변수인 각각의 대처전략이 모두 평균중심화 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차별 경험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적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고 적극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낮을 때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차별의 강도가 높을 때에는 그래프가 역전되어 적극적 문제해결 점수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적극적 문제해결 점수가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그림 2]에 제시된 소극적 문제해결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차별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소극적 문제해결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차별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소극적 문제해결 점수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급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회피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3]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회피 점수가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의 강도가 높아지면 그래프가 역전되어, 회피 점수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차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기울기의 폭이 작은 반면에, 회피 점수가 낮은 다문화청소년은 차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도 급격하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에 제시된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차별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점수가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약간 높았지만 차별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급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지추구 점수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차별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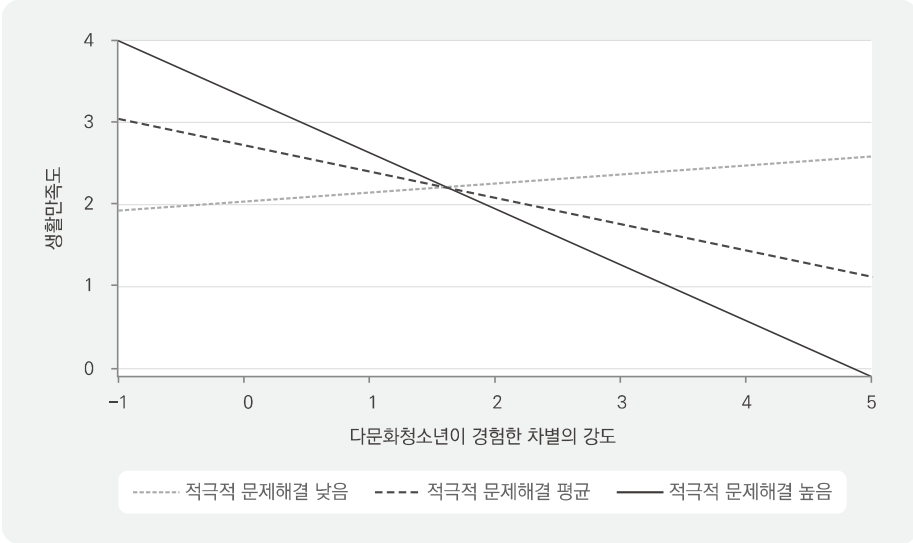


그림 2. 소극적 문제해결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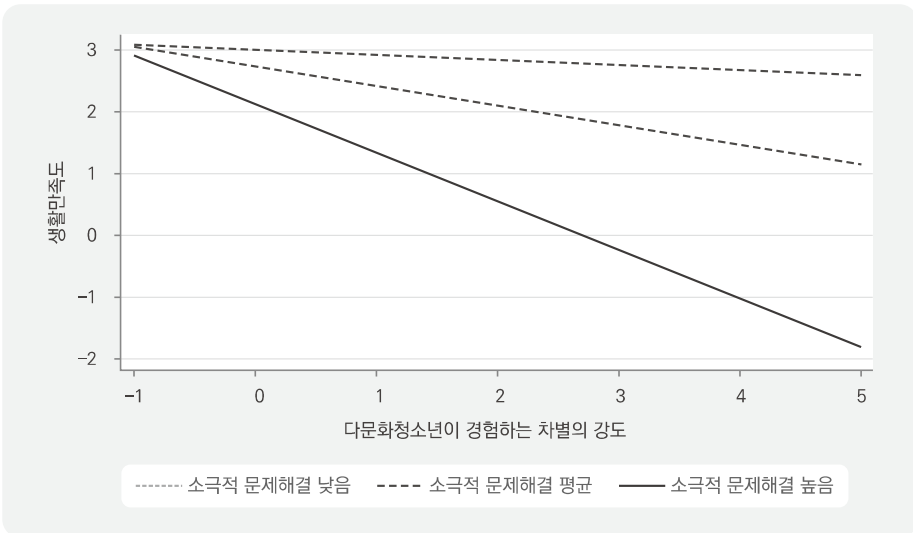


그림 3. 회피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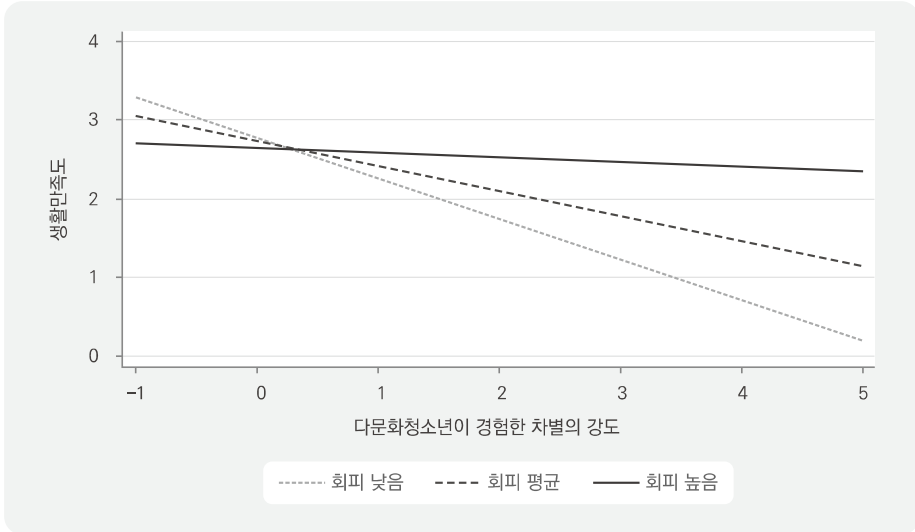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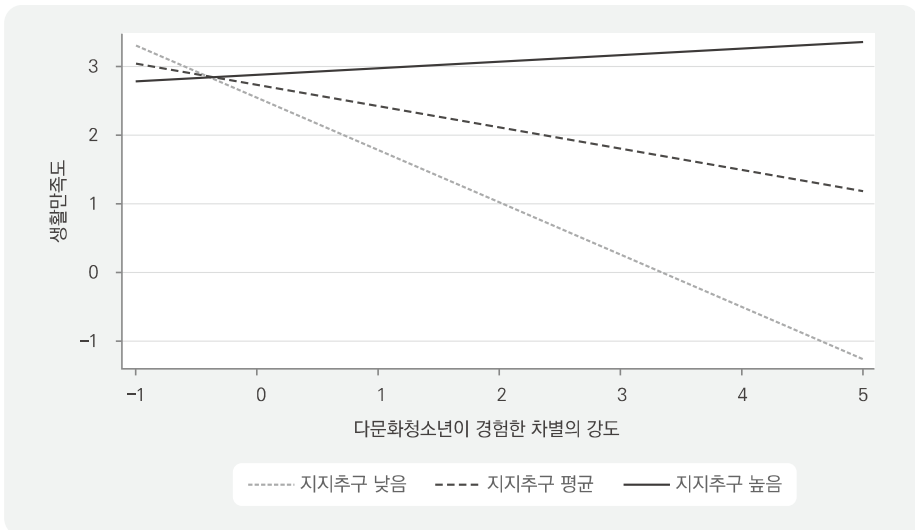


그림 4.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지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스트레스적 상황인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277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 회피 전략, 지지추구 전략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대처전략이 스트레스적 상황인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극적 문제해결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차별과 적극적 문제해결의 상호작용항은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셋째, 차별과 소극적 문제해결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별과 회피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다섯째, 차별과 사회적 지지추구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차별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낮아졌다. 이는 사회의 소수자로 위치하고 있는 민족/인종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Neblett et al., 2008; Wei et al., 2008; Utsey et al., 2000; Noh et al., 1999; Broman, 1997)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응답한 차별의 경험이나 강도가 지속적이거나 높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태도의 일종인 차별의 경험이 사회 내에서 소수자로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다. 청소년들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이들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심리적 증상들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기 때문에(Zulling et al., 2005),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과 회피전략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대처, 계획, 긍정적 재구성을 포함하는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던 반면에, 차별과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의 상호작용항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는 차별의 강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 사회 내에서 민족/인종 지위로 인해 소수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인식과 관련된 구조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한 개인이 의지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Noh et al., 1999; Mosher & Prelow, 2007; Wei et al., 2008). 심한 차별적 상황을 경험할 때에는 회피가 오히려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차별과 회피 전략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차별의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의전환, 유머, 부정의 대처전략을 포함하는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사회 내에서 민족/인종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이 민족/인종적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상황을 떠나는 것이 개인의 정서와 건강에 더 긍정적인 수 있다(Utsey et al., 2000). 차별이라는 사회구조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취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가 반드시 상황의 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인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회피전략을 취한다는 국외 연구의 분석을 한국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별로 인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선불리 조언하고 교육할 수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강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고, 상황을 피하는 회피전략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민족/인종적 지위에 있어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회집단에게 한국사회가 행사하는 사회적 압력과 차별이 얼마나 구조적이

며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시급한 것은 적극적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차별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여전히 외국인 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과 차별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철회, 자기비난을 구성요소로 하는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은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억압적 문제해결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억압적 문제해결 전략은 차별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ei et al. 2008), 본 연구결과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은 낮은 자아존중감과도 상관이 있어서,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적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Dion et al., 1992).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존감의 향상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상황에 맞는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지추구 전략과 차별의 상호작용항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지지추구 유형은 도구적 지지 사용과 정서적 지지 사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대처유형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을 돕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위의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타인의 정서적 지지나 실질적 지원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구성이 고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표집방법이 어머니의 출신국적에 따른 비례확률표집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국가 비율과 본 조사의 표본 비율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결과가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수집은 201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의 조사시점과 연구의 분석시점 사이에 간격이 다소 크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의 현재의 모습을 포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고(김석준, 2015), 이 관계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관련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차별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아니라, 개인이 취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측정하고 있다. Ayers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전략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일반적인 대처전략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가 .42에서 .59 사이 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상황에 관계없이 취하는 일반적인 대처전략이 있으며 이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의견과, 대처전략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처전략과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전략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차별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차별이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살펴본 연구라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와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자. (2012). 대학생의 자연행동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주관적 안녕감: 자이존증감의 매개효과. *담론* 201, 15(1), pp.67-92.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pp.53-69.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8(3), pp.6-41.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pp.47-176.
- 김진주, 조구판. (2011).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pp.301-314.
-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 pp.117-149.
- 박진아, 정문자.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pp.107-122.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2013). *정상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개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에서 2016.4.1. 인출.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등.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pp.919-935.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pp.19-33.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pp.77-91.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11-1383000-000384-12).

서울:여성가족부.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pp.123-143.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p.1066.
- Araujo, B. (2004). *A study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tress among Dominican im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Ayers, T. S., Sandler, I. N., West, S. G., & Roosa, M. W. (1996).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64, pp.923-958.
- Barnes, P. W., Lightsey, O. R. (2005). Perceived Racist Discrimination, Cop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1), pp.48-61.
- Blank, R. M., Dabady, M., & Citro, C. F. (Eds). (2004). *Measuring racial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Broman, C. L. (1997). Race-related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3, pp.30-49.
- Brown, C. S., & Bigler, R. S. (2005). Children's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76, pp.533-553.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pp.92-100.
- Carver, C. S., Scheier, M. F.,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pp.267-283.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pp.87-127.

- Coyne, J. C., & Gottlieb, B. J. (1996). The mismeasure of coping by checklist. *Journal of Personality*, 64, pp.959-991.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Dion, K. L., Dion, K. K., & Pak, A. W. (1992). Personality-based hardiness as a buffer for discrimination-related stress in members of Toronto's Chinese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4, pp.517-536.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일산: 연암서가. (원서출판 1950).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pp.219-239.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pp.158-164.
- Gaylord-Harden, N. K., & Cunningham, J. A. (2009). The impact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internalizing symptoms i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4), pp.532-543.
- Gilman, R., & Huebner, E. S. (1997) Children's reports of their life satisfac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8, pp.229-243.
- Harrell, S. P. (1997). *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 (RaLES)*. Unpublished instrument. Los Angeles, CA: Pepperdin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Psychology.
- Huynh, V. W., & Fuligni, A. J. (2010). Discrimination hurts: The academic,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4), pp.916-941.
- Jackson, J. S., Brown, T. N., Williams, D. R., Torres, M., Sherrill, S. L., & Brown, K. (1996). Racism and physical mental health status of African Americans: A thirteen year national panel study. *Ethnicity and Disease*, 6(1,2), pp.132-147.
- Kuiper, N. A., Grimshaw, M., Leite, C., & Kirsh, G. (2004).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7(1-2), pp.165-168.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pp.2324-2347.
- Martin, R. A. (2007). *The Psychology of Humor: An Integrative Approach*. San Diego, CA: Elsevier Academic Press.
- Mosher, C. E., & Prelow, H. M. (2007). Active and Avoidant Coping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of Maternal Involvement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pp.876-887.
- Neblett, E. W., White, R. L., Ford, K. R., Philip, C. L., Nguyen, H. X., & Sellers, R. M. (2008). Patterns of racial socializ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can parental communications about race reduce the impact of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3), pp.477-515.
- Noh, S. Beiser, M., Kaspar, V. Hou, F., & Rummens, J. (1999).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pp.193-207.
- Sandler, I., Wolchik, S., MacKinnon, D., Ayers, T., & Roosa, M. (1997). Developing linkages between theory and intervention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In S. A. Wolchik & I. N. Sandier (Eds.), *Handbook of children's coping with common life stressors: Link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Plenum. pp.3-40.
- Scott, L. D., & House, L. E. (2005). Relationship of distress and perceived control to coping with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mong black youth.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1(3), pp.254-272.
- Seaton, E. K., Yip, T., & Sellers, R. M. (2009).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racial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0(2), pp.406-417.
- Skinner, E. A. (1995). *Perceived control, motivation, and coping*. Thousand Oaks, CA: Sage.
- Utsey, S. O., Ponterotto, J. G., Reynolds, A. L., & Cancelli, A. A. (2000). Racial

- discrimination, coping,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1), pp.72-80.
- Walker, L. S., Smith, C. A., Garber, J., & Van Slyke, D. A.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in Response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9(4), pp.392-405.
- Wei, M., Ku, T.-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pp.451-462.
- Zulling, K. J., Valois, R. F., Huebner, E. S., & Drane, J. W. (2005). Association Amo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Adolesc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pp.195-206.

이지연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 한국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양육,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며, 현재 다문화가족의 양육과 민족인종사회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ibbog2@snu.ac.kr)

그레이스 정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관계, 가족스트레스 및 다문화가족이며, 현재 청소년기 가족을 중심으로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gracechung@snu.ac.k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Lee, Ji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Grace 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 also attempted to figure out how each coping strategy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227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foreign mothers in pairs, and the sample included 211 early adolescents aged 10-15.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y entering discrimination sco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each coping strategy type as a mode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 use of act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t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whe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high. The use of pass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intensified the adverse effects of discrimination, while support seeking strategies buffered the negativ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use of avoidance strategies brought better outcomes when adolescents perceived that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This study provided preven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by identifying different meanings of cop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y, Life Satisfaction